

낙동강 유역사

지 흥 기 (영남대학교 토목도시환경공학부 교수)

1. 낙동강 유래와 전설

· 낙동강의 유래

낙동강의 원래 이름은 삼국시대엔 '황산강(黃山江)' 또는 '황산진(黃山津)' 이었다. 고려-조선 시대에 와서 '낙수(洛水)', '가야진(伽倻津)', '낙동강' 이라 하였다. '황산' 이란 이름은 '황산나루'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 나루는 지금의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에 있던 나루터(사진1)로, 삼국시대에 신라의 수도 경주와 가락의 중심지 김해 사이에 교류가 성했던 곳이다. 낙동(락동)이라는 이름은 가락의 동쪽이란 뜻인데, 가락은 삼국시대에 가락국의 땅이었던 지금의 경상도 상주 땅을 가리킨다. 즉, 상주(가락)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란 뜻으로 '락동'이란 이름이 나왔다. 조선시대 이공익(李肯翹, 1736~1806)이 지은 <연려실기술> '지리전고(地理典故)' 편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낙동(洛東)은 상주의 동쪽을 말함이다."

낙동강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동일대에서 돌망치 등 구석기 유물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의 빗살무늬토기, 부산 영도 동삼동, 조도, 다대포 등지의 패총 등 다양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역사 시대에는 청동기 및 철기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으로 수십 개의 부족국가들로 이루어진 가야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천년고도 신라가 자리잡았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교통과 무역 요충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역으로 임진왜란과 6.25의 비극을 간직한 가슴아픈 사

연이 깃든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근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지역이다.

· 낙동강의 전설 : 황지

낙동강은 황지 일대에서 모여진 물이 동점동 남쪽에서 조그마한 산을 뚫고 흐르는데, 이 구멍 밑에 생긴 큰 웅덩이가 바로 '구멍으로 된 소(沼)'란 뜻의 '구무소'다. 안동의 '영호정'이란 정자를 지을 때, 대들보감을 화전리 천의봉에서 베어 황지 냇물에 띄워 나르는데, 홍수가 나서 그 대들보감이 산의 벼랑에 세차게 부딪쳐 큰 벼락 소리를 내면서 구멍이 뚫려 그 구멍으로 낙동강의 물이 빠지게 되고 밑에 웅덩이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구무소 '자체의 전설도 있다. 옛날에 엄종한이란 사람이 구무소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다고 한다. 하루는 쳐 놓은 그물이 없어져 그것을 찾다가 물속에 빠졌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 어느 집 앞에 자기가 잃었던 그물이 걸려 있어 가져오려 하였더니, 한 노인이 나와 이를 막았다. 엄 씨가 모든 얘기를 하였더니, 노인은 자기의 두 아들이 그 그물에 걸려 죽을 뻔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이 돌아오면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니 빨리 돌아가라면서 길을 안내해 줄 강아지를 주었다. 강아지를 따라가다 보니 자기가 빠졌던 곳에 이르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곳에서 삼년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알아 보니, 엄 씨가 이 구무소에서 빠져 죽은 지 3년이 되어 대상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자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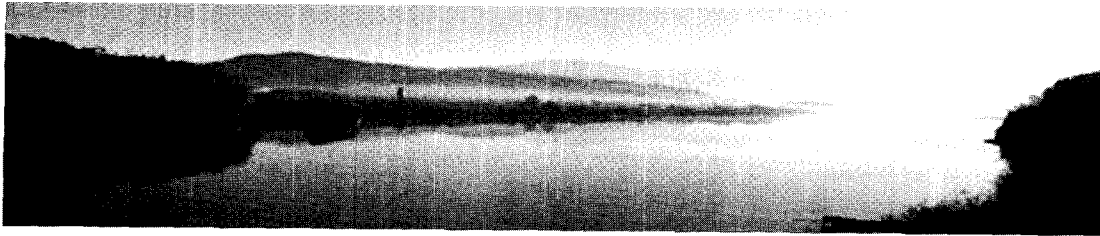


사진 1. 해뜨는 낙동강(물금리 나무터)

빠져 죽은 지 벌써 3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엄 씨는 그 구무소에서 죽은 이가 바로 자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를 알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이 된 후에 엄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데리고 온 강아지도 동시에 죽어 함께 묻혔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그 구무소에선 사람이 빠져 죽거나 고기 그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2. 낙동강유역의 역사적 흐름

· 선사시대

낙동강은 경상남북도의 큰 동맥으로서 고대부터 이 지역의 인문지리를 발달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낙동강 유역에는 역사시대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유적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중동일대는 특히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구미 공업단지가 건너다 보이는 낙동강 동편의 중동일대에서 구석기인들이 사용하였던 돌망치 등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이들 석기는 구석기 시대 중기의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유역의 선사문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가 시베리아를 거쳐 두만강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영남지방의 신석기문화는 낙동강 유역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로 대표되는 빗살무늬토기는 압록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서남도서, 두만강 등의 6군으로 나뉘어진다. 낙동강유역에서 경상남도 울주군의 서생과 부산 영도의 동삼동과 조도, 다대포 등지의 패총이 신석기시대 유물의 출토지이다.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낙동강유역의 영남지방은 특히 청동기와 초기 철기문화의 꽃을 피운 곳이다. 이 시대의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대구, 영천, 경주일대로 이곳은 대동강유역을 제외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철기문화와 병행하여 삼한이 형성되는데 대체로 마한이 경기, 충청, 전라남도 지방을, 진한이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지방을, 진한과 변한이 낙동강 서쪽의 경상도 지방을 각각 차지하였다. 따라서 삼한 중에서 진한과 변한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역사의 터전을 잡은 것이다. <삼국지>위지 동이전 진·변한조에 따르면 3세기 중엽에 진한과 변한에는 모두 24개의 국가가 있었다. 사실 1세기 무렵부터 낙동강 유역의 변한과 진한 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철기시대를 맞게 된다. 울산, 동래지방의 제철유지 등이 철기시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또 김해 등지의 김해식 토기와 사천, 진주, 고성, 밀양, 동래 등지의 패총, 지석묘, 웅관묘 등에서 출토되는 석검, 철검 기타 철제 유물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김해 패총 등에서는 탄화된 쌀알이 나와 이미 저습한 충적평야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은 남쪽 바다를 끼고 있어 해륙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비옥한 충적평야와 이어져 있어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런 삼한 사회에 있어서 낙랑, 대방군으로부터 대륙의 금속유물도 이 낙동강 유역을 통해서 수입되어 진한과 변한의 부락국가를 개방시켰으며, 상류지방에 있어서의 웅국은 사벌국으로 추측된다. 사로국이 차차 이웃나라를 통합하여 갈 때 첫 목표가 이 낙동강 유역이 되었고 상류지방을 상주, 하류지방을 해주라 일컫는 시기가 있었다. 낙동강 하류지방의 부락국가군을 특히 변진 또는 옛 가야지방<사진2>이라 하였다. 이 지대는 후에

왜, 신라, 백제 세 나라의 각축장이 된다. 4세기까지 낙동강을 경계로 한 사로국은 강서쪽의 대가야 등 비교적 큰 국가와 대항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낙동강 유역의 신라의 핵심부분이 되어 이 일대를 바탕으로 1세기 뒤에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 통일신라시대

삼국통일로 커다란 영토를 지배하게 된 신라는 685년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으로 9주5소경제도를 채택하였다. 9주 가운데 옛신라 및 가야의 땅인 낙동강 유역인 사벌주, 삼량주-(지금의 양산), 강주, (지금의 진주) 의 3주로 나누었다. 낙동강 유역의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신라인데 반하여 이보다 앞서 순전히 낙동강 하류에서 이 강을 중심으로 산재하여 있던 수십개의 부족국가들이 이룩한 나라가 가야국이다. 그러나 이 지대는 신라 진흥왕 때 이르러 신라에서 이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강은 수운이 편리하며,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세미의 운송로가 되어 조창도 연안에 설치되었다. 또 남쪽 대마도와 일본과의 교통무역에도 이 수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인이 내조하여 상경하는 교통왕래도 처음에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령을 넘어 충주에 이르고 다시 한강을 내려가서 한성에 이르는 길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 뒤 상경로 연선의 역인이 입역에 피곤하여 폐해가 생겼고 또 일본선박의 삼포분박의 제도가 정해짐으로써 상경로도 지정되었다. 이 수로 왕래의 기점인 김해의 도요저는 그의 요진으로 관선을 갖추고 있었으나 세조때에는 이곳이 삼포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강의 연선인 동래구 동원동에 따



사진 2. 우포사람들(옛 가야국)

로 수참을 설치하여 김해, 양산의 공천을 참부로 사용하여 왜인의 왕래에 편익을 주었다. 그리하여 동원동은 그 뒤 왜인과의 무역상 요지가 되었다. 6.25동란때 남하하여온 인민군을 이 강에서 방어하였고 9.28 수복전의 발판이 된 것도 이 낙동강이 가진 역사이다.

3. 낙동강 유역의 발원과 생태

· 낙동강 발원지

1486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 삼척도호부편에 '황지(黃池)부 서쪽 1백10리에 있다. 그 물이 남쪽으로 30여 리를 흘러 작은 산을 뚫고 남쪽으로 나가는데 천천(穿川)이라 한다. 곧 경상도 낙동강의 원류이다. 관에서 제전(祭典)을 두어서 날씨가 가물면 기우(祈雨)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1978년 김우관(金又寬) 교수는 낙동강 유역도(축척 1 : 250,000 지형도) 상에서 낙동강의 수계차수(水系次數 : Stream Order)를 조사한 결과, 1차수 -

표. 낙동강 최상류층의 길이 측정결과

1차수(발원산)/m	기점	지도상 길이/cm	실제길이/km	순위
황지못	합수점	14	3.50	5
태백산(1,546.5)	합수점	41	10.25	4
함백산(1,572.9)	합수점	48	12.00	3
금대산(1,418.1)	합수점	50	12.50	2
천의봉(1,442.3)	합수점	52	13.00	1

1,634개, 2차수 - 397개, 3차수 - 85개, 4차수 - 21개, 5차수 - 5개, 6차수 - 1개로 주류는 6차수다.

물줄기가 시작된 1,634곳의 발원지 중 어느 곳이 최장 발원지일까? 이 의문의 정답을 찾아내는 열쇠는 강의 길이를 측정하여 길고 짧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문제를 좀더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함백산, 태백산, 황지못, 기타 금대산, 천의봉 등의 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축척 1 : 25,000 지형도 상에서 곡선자로 그 길이를 비교해 보면 위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낙동강 최상류 일대의 1차수를 측정한 결과 천의봉이 합수점에서 13km로 최장 발원지(1차수)였다. 이 산은 지도상 EL. 1,442.3m로 표시되어 있는 무명봉으로 정상에 삼각점 표석(1977. 7. 건설부 복구)을 국립지리원에 확인 결과 천의봉(天衣峰)이라고 하며,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간)에도 '추천: 천의봉 밑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하천의 길이는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인 하구에서 최장 1차수 간의 거리다.

낙동강의 법정하천(건설부 지정)상 하구(河口)는 '경남 김해군 녹산면 녹산배수문 우안으로부터 국도 노선을 따라 부산직할시 서구 하단동을 연결한 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 최장 1차수인 천의봉 동쪽 계곡까지의 길이는 지도상 길이 2.054km로 실제 길이는 513.5km였다. 이때 활용한 지형도(1 : 25,000)는 다대, 김해, 동래, 양산, 물금, 밀양, 봉림, 진영, 오방, 영산, 남지, 대합, 쌍책, 현풍, 고령, 파산, 왜관, 인동, 해평, 선산, 낙동, 다인, 상주, 용궁, 풍천, 매곡, 안동, 남선, 예안, 인계, 원순, 재산, 춘양, 당동, 현동, 철암, 도계, 함백 등 38개 지형도다.

낙동강의 525.15km는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김해 명지와 동래 사하(하구)에서 강원 삼척·상장면까지의 길이를 측정, 발표한 자료로 그동안 유로의 변동, 하구, 최장 1차수의 변동 등으로 길이가 변화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지형도에서 낙동강의 최장 1차수(발원지) 지역을 현지답사한 결과, 너덜지역에서 한 샘이 용출하는 것을 발견(1982. 10. 1.~3.)한 바 있으며, 이 샘을 '너덜샘'이라 명

명하고 '낙동강의 발원지 - 너덜샘'이란 표지목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태백시 문화원에서는 황지못을 낙동강 발원지로 주장, 기념시설물을 설치하여 관심있는 분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나 이곳은 최장 1차수(발원지)는 아니다. 단지, 문헌상 발원지이며, 1차수일 뿐이다. 전 영남대학교 오세창 교수도 제6차 낙동강 대탐사 시(1996. 7. 30.~8. 2.)에 이 샘에 '낙동강의 발원지 - 너덜샘'이란 철제 표시판을 세운 바 있음을 첨기한다.

· 낙동강의 생태계

현재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주변과 수물지역에는 백로, 흑로 등이 금호강의 무대교 부근 붉은부리 갈매기, 황조롱(천연기념물 323호)이 금호강 하류에는 노랑부리 백로, 왜가리 등이 날아들고 있으며, 고령군 다산면 각촌리 일대에는 세계적 희귀종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가 찾아들곤 한다. 낙동강 하류의 을숙도(사진3)는 낙동강 하구의 석양노을 빛으로 붉게 물들인 하늘을 시꺼멓게 뒤덮는 철새의 비상을 연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낙동강 하류에서 기록된 새의 종류는 2백6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많은 새가 기록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개체 수 또한 세계적이었다.

수초라고도 불리는 수생식물은 수면에 등등 떠다니거나 얕은 물에 뿌리를 내리는 등 물과 펠레야 펠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식물이다. 이들 수생식물은 유속이 느리고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호수, 연못, 습지, 강의 하구에 많이 살고 있다. 수생식물은 물과 직접 부대끼며 살아가는 만큼 수질 및 물 주변의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이 때문에 수질 측정의 또다른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끊임없는 광합성 활동을 통해 물 속의 용존산소를 풍부하게 하여 자정작용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등을 걸러주는 정화작용으로서의 필덕역할까지도 한다. 낙동강 본류의 수생식물은 총 16과 20속 35종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 중류지점인 대구를 기점으로 상·하류에 분포하는 수생식물을 살펴보면 대구인근

상류지점에는 16종, 하류에는 26종으로 하류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침수성 식물인 검정말이 우점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생이가래, 붕어마름 등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물 속에서 사는 수서곤충은 특정 종의 유무, 종수와 개체 수의 구성 등 군집구조의 뚜렷한 차이로 수중생태계의 성상은 물론 수중환경을 평가하는데 적당하다. 낙동강 본류와 지천인 회천 및 황강의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상을 조사한 결과 낙동강 본류에만도 19목 59과 79속 1백2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의 상류수계에 해당하는 태백산 당골과 봉화군 백천계곡에서는 선충류, 하루살이류, 날도래류 등 청정수역에서 서식하는 종류를 포함, 30여종이 채집되고 있다. 그러나 백천계곡에서 4km도 지나지 않은 석포면 석포제련소 아래지점은 출현수가 18종으로 감소하였으며, 종류도 대부분 오염수역에서 많은 깔다구류, 실지렁이류 등이 많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봉화군 청량사 앞에서는 전체 70~80%가 1, 2급수에서 서식하는 종류로 총 68종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이 채집되고 있다. 이처럼 오염 정도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물의 종류와 수로 모든 생물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의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곤충의 종류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금호강 합류후는 오염수에서만 서식하는 붉은색깔다구, 등각류의 나귀벌레 등을 포함 13종만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낙동강의 경우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파리목과 잠자리목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주로 청정 지역에 서식하는 하루살이목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오염이 심해지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천변의 식생은 상·중·하류지역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토양의 수분함량과 성분의 차이에 따라 식생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낙동강 상류는 홍수기에 파괴력이 크고, 물의 흐름이 대단히 강해 이러한 환경에도 잘 생존하는 달뿌리풀 군락이 대표

적인 식생이다. 상류지역의 대부분은 홍수에 의한 파괴와 토양특성의 영향으로 여뀌, 쇠뜨기 등이 산재한다. 홍수의 영향이 적은 해나 갈수기에는 일년생 초본류가 일시적으로 번성케 된다. 중·하류라도 상류의 영향대로 물길의 영향이 큰 곳에는 상류와 마찬가지로 달뿌리풀 군락이 발달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차츰 점토질이 퇴적되고 하상이 높아져 갈대군락이 발달해 있다. 하천변 식생의 전형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안동시 구담교 좌안에는 소규모의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물가에는 배자기군락이 발달해 있으며, 버드나무류, 여뀌류 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부한 생태계도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군생들의 인문활동이나 산업활동에 따라 그 종과 수가 명멸을 거듭해 왔을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낙동강 유역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소규모의 저수지 건설이 붐을 이루었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형 댐을 건설하면서 낙동강 본류는 물론이고 지류에서 생태계가 차단되는 등의 인위적인 왜곡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수지나 댐은 용수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지속적인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으로 명멸하는 생태계를 소생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음을 과소평가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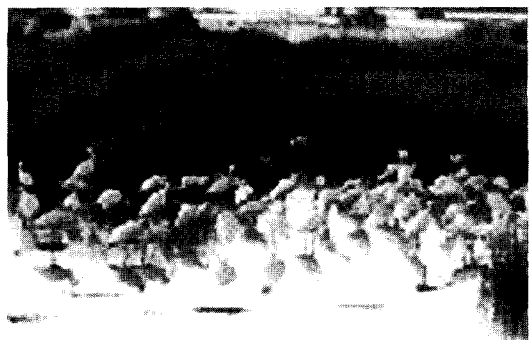


사진 3. 을숙도 철새(살아있는 낙동강)

4. 낙동강유역의 분지문화

· 분지문화의 잉태

태백산맥이 남하하는 영덕군·월성군 일대와 이백

(二白 : 태백·소백)이 갈라지는 지대, 오늘날 '특정 낙후지대'가 되어 있는 영양·영주 일대의 취락들은 잠곡재배문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화전경작(火田耕作) 단계의 문화를 최근까지도 보유하고 있던 곳이다.

소백산맥의 동남사면의 산록지대에는 영주·예천·문경·김천·성주·고령 등의 분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들 분지들은 봉화군·안동군·상주군·선산군 일대와 더불어 유명 씨족촌락들의 밀집지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학·인류학의 씨족조사 보고서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지 모른다. 영남학파의 진원지, '영남사람과'의 생성지, '추로지향'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분지이다. 영남문화라 할 때, 흔히 반례(班禮)를 중심으로 예교문화(禮敎文化)를 대표시키는 경우가 많고, 영남의 문물예교를 찬양한 옛사람들의 평어(評語)들도 이 지역에서 나온 것이 대단히 많다.

소백산맥이 속리산과·가야산과를 구비로 남하하는 선을 따라 옛 가야문화를 지탱한 분지의 곡창들이 펼쳐진다. 그리고 지리산과를 넘어 영남과 호남의 문화가 복합되는 지역이며, 삼국시대에는 동쪽의 가야문화가 서쪽으로 들어가는 동서문화가 교섭이 있었던 지대이기도 하다.

낙동강은 영남문화의 근간적 배경이 되어 온 자연 환경이다. 낙동강의 서쪽과 소백산맥 사이인 조선시대의 경상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한 가야의 고토들이다. 상주의 사벌국, 금릉의 감문국을 위시하여, 대가야(고령가야), 성산가야(성주), 거창, 창령일대의 가야제국의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다.

낙동강의 동쪽과 태백산맥 사이, 조선시대의 경상좌는 진한과 신라의 옛땅이다. 지형적으로 낙동강의 대소지류 유역에는 수많은 소분지들이 형성되어 고대가야 제국을 발달시켰으며, 특히 경주분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고대문화는 한민족문화 통합의 핵심적인 문화력으로 발달하였던 것이다. 즉, 영남문화를 자연배경을 중심으로 살필 때, 태백산맥·낙동강·소백산맥이 동서로 삼분하고 있는 지역성은 영남문화를 보는 중요한 시각 속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은 소백산맥이 서·북을 두르고, 동해와 남해가 동·남을 둘러 싸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 분지(構造盆地)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육괴(陸塊)와 2개의 분지와 2개의 아분지(亞盆地)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분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백산 육괴와 경상분지, 포항분지, 그리고 영양아분지와 밀양아분지가 하나의 큰 분지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 낙동강유역의 소분지(小盆地)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유역 분지는 태백·소백산맥에 둘러싸여 내륙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낙동강과 그 지류는 어떤 곳에서는 구조산맥(構造山脈) 속에 경사가 급한 협곡을 파면서 굴곡하기도 하고, 중·하류부에서는 하천연안에 대상충적평야(帶狀沖積平野)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지형의 대부분은 구릉지의 사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4). 따라서 좋은 농토의 면적이 적고, 논의 계단경지와 밭의 율이 서해안 지방보다 높다. 이 점이 영남문화에 있어서 소분지적(小盆地的) 특성을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 배경이 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낙동강 유역분지의 평지는 본류와 지류를 따라서 좁게 나타나며, 이 큰 분지 내에 또 고립된 소분지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지역을 지리학계에서는 낙동강 하곡(河谷)이라기 보다는 낙동강분지로 부르고 있다.

낙동강 상류분지는 북부와 서부에 소백산맥, 동부에 태백산맥, 남부에 팔공산·금오산과에 의하여 둘러싸인 분지다. 이 분지 안에 반변천, 내성천, 위천, 영강, 감천의 5대지류가 흐르며, 이들 지류의 크기는 본류와 거의 비슷하여 이들 6대 하천이 수지상(樹枝狀)으로 전역에 펼쳐져 있다.

반변천 합류지점 부근의 안동분지, 내성천 하류의 예천분지, 영강하류의 함창분지, 이에 접하여 상주분지, 위천유역의 의성분지, 감천 하류의 선산분지 등의 소분지가 발달하여 있다. 이 소분지들이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대분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분지들에서는 또한 역사 깊은 읍락들이 각기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반변천 상

류에는 영양·청송·진보 등의 고읍(古邑)이 있고,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는 영남북부의 문화중심지라 할 왕년의 대도호부 안동시가 있다.

내성천 상류에는 풍기·봉화, 중류에는 영주, 하류에는 예천 등의 고읍들이 있다. 영강(潁江) 상류부에는 고읍 문경이 있고, 하류부에는 근대의 상업도시이면서 신흥공업도시이기도 한 점촌이 있다. 북천의 하류에는 사벌국(沙伐國)의 고지로서 유서깊은 상주가 발달하고, 위천의 상류부에는 의성·군위 등의 고읍들이 있다. 그리고 감천의 중류에는 감문국(甘文國)의 고지이며, 경북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김천시가 있다. 금호강은 낙동강 제일의 지류이며, 유명한 대구 분지 대부분이 이 유역분지에 해당한다. 상류지방에 영천시가 있고, 중류 부근에 경산시, 본류와 합류하는 부근에 대구광역시 위치한다.

대구분지는 협의로는 대구시 시가지를 엮고 있는 구역으로 북동쪽과 팔공산과, 남쪽의 비슬산과, 서쪽의 낙동강에 의해서 둘러싸인 대체로 삼각형의 구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광의의 대구분지는 동쪽에 태백산맥, 북쪽에 팔공산, 금오산과, 서남쪽에 가야산맥, 남쪽에 성현·비슬산과에 둘러싸인 대분지로, 영천시·경산시·대구광역시·칠곡군·달성군·성주군·고령군 등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가리킨다. 모두가 역사 문화의 중요 거점들이며, 이를 둘러싼 산하는 모두가 아직은 거의 미조사의 문화와 사회들을 간직하고 있다.

낙동강은 경상북도의 거의 중앙을 관류하여 창녕군 덕곡면 울지(栗旨 : 밤마리) 부근에서 경상남도도 들어 간다. 경남으로 들어간 낙동강은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에서 황강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에서 남강을 합류한다. 여기서 유로(流路)를 동으로 돌려 밀양군 하남읍 삼랑리에서 밀양천을 합류하여, 다시 남으로 방향을 바꾸어 양산군 양산리에서 양산천을 합쳐서 하류의 김해군 일대에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면서 사하 근처에서 남해로 흘러든다.

황강은 경남의 서북부를 접하는 거창군·합천군을 스쳐 흐르면서 고대에는 가야문화를 꽃피웠고, 최후까지 남은 대가야(고령가야)의 젖줄이 되었다. 남강

은 그 유역에는 산청·함안·진양·거창 분지 등의 제군을 포함하는 낙동강 유역면적 전체 23,859km²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남의 곡창지대를 형성한다. 또한 고대 가야제국의 큰 거점을 이루고, 그 하류에서 서부 경남의 역사도시인 진주시를 발전시킨다. 밀양강은 태백산맥의 종단층계단을 따라 S자형으로 남류하다가 밀양시의 동쪽에 동창천·청도천을 합하여 그 유역에 밀양평야를 형성하면서 밀양시·삼랑진 서쪽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한다.

국토 전체의 분지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논단은 삼가하는 터이거니와, 위의 분지들은 각기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영남문화의 복합성·다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배경이 되어 온 것 같다.



사진 4. 인공위성에서 본 낙동강 분지

분지란 사방을 산으로-때로는 어느 한 면이 하천으로-둘러쌓여 이들 분수령에서 안쪽으로 흐르는 물을 작은 계곡들에 의하여 골짜기에 모우고, 이 물이 다시 하나의 방향인 분지 밖으로 흘러 나간다. 고개를 넘어 바깥세계와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서울나들'이 외계로 가는 통로가 되어 있다. 분지의 바깥에는 상당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대체로 이런 경지들이 고대에는 토성(土性) 집단들의 생활근거지

가 된 듯하다. 이 토성집단들에 백이 닿는 유명씨족의 후예들이 씨족촌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분지 주민의 생활권의 중심지에 중세 이후의 군현이 설치되어 지역의 권력자가 좌정하며, 장시(場市)가 형성되어 사람과 산물과 정보가 집산하기도 한다. 이런 양태가 분지문화의 기본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작게는 '우리마' (한마을)에서 크게는 '내고향' (한고을)까지 크고 작은 이런 분지들이 하나의 소세계, 소우주의 문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남문화의 한 특징이 될 것 같다. 이 특징은 어쩌면 국토의 3/5~4/5가 산지로 되어 있는 한반도 전반의 특징이기도 할 것 같으나, 중부한국이나, 반도의 서남부의 평야에 비하여 특히 낙동강 유역의 문화거점들은 분지문화적 성격이 강한 것 같다.

· 분지문화의 특징

분지문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워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지형적으로 하나의 폐쇄적 공간을 이루고 있어서, 독자적인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가지기 쉽다.

둘째, 지형적으로 유별될 수 있는 산지·구릉·계곡·경지 등의 지역을 포함한 생태학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한 생활양식·생산활동양식을 간직하기 쉽다. 즉, 산으로 둘러싸인 이 세계에는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적체(歷史積滯)가 새겨져 있다. 곳에 따라서는 농경문화에 앞서는 선사문화에서부터 역사시대의 문물 밑에 변형·소멸되어 버린듯한 문화의 잔존까지 볼 수 있을 경우가 있다.

셋째, 소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영역은 하나의 작은 세계다. 그 분지의 바닥에는 사람과 산물과 정보가 집산하는 읍락(邑落)이나 장시(場市)를 가지며, 그 주위에 평탄한 농경지가 있고, 외곽의 구릉에는 계단식 경지나 숲이 있으며, 그 배후에 산림과 분수령에 이어지는 산지(山地)를 가진 세계다. 각기 개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역사시대, 때로는 그 이전의 기억까지가 같은 공간에 중복되어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통합되어 있다는 뜻에서는 국토 전체와 공통성을 가지기도 한다.

앞에서 열거한 경상남·북도의 낙동강 유역을 따라 분포하는 소분지들은 주로 고대의 신라·가야문화의 배경이 된 분지들이다. 황강유역의 고령분지, 형산강을 낀 경주분지, 반변천 유역의 안동분지 등은 이러한 분지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화영역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 유역문화, 나아가서 영남문화를 고찰하는 데는 이 분지문화들이 가지는 유구한 시간성과 문화적 개성을 아울러 살피는 시각도 필요할 것이다.

5. 낙동강유역의 문맥

· 문맥의 형성

영남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상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시종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민족문화 발전의 문화력을 지속적으로 간직해 온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옛 진한(辰韓)의 땅이고, 가야 12개국의 고지(故地)이며, 삼국시대는 신라왕국의 강토였고 7세기 이후는 국토와 민족을 통합하여 거의 전 한반도를 통일한 통일신라문화의 핵심적 위상을 가졌다. 경주가 학문·예술·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8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찬란한 신라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신라의 수도 경주의 주민이 178,963호를 이루었다는 기록도 보이니, 당시의 경주는 분명히 세계 굴지의 대도시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문화는 안으로는 가야와 삼국의 문화를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북으로 만당(晩唐)의 낙양문화(洛陽文化)를 수용하고 서남의 해로(海路)로 인도, 동남아문화와 교류·교역하는 등 당시의 극동에 있어서 국제문화의 한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당시의 세계문화를 섭취 융화하여 민족의 문화능력으로서 재창조하였다 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경북만 해도 영호정(사진5)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약 20%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거의 무진장으로 남아있는 고고학·미술사적 자료들이 영

남의 문화력을 웅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성불교의 조종으로서 법성종을 창도한 원효대사나, 해동 화엄종의 시조 의상대사, 한자를 수용하여 이두와 향찰로 국자화(國字化)한 설총, 중원까지 문명을 떨친 최치원·김대문·김인문 등의 문장가 등은 분명히 수용·융합·재창조의 과정을 거쳐 개화된 신라문화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신라정신의 정수를 '대조화정신'으로 보는 거시적 안목이나, 원효의 화쟁론(和論), 의상과 보조지눌(普照知訥)의 융화사상(融和思想)의 바탕에 무(巫)의 조화의 원리를 투시하는 태도는 이러한 문맥에 닿아 있을 것이다.

신라문화는 그 자체 속에서 중세문화를 담당할 계층을 양성할 문화력을 배육하여 고려왕조에 민족 재통일의 길과 힘을 피흘리지 않고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 문화력의 중심이 또한 영남이었다. "조선인재의 반이 영남에 있다"고 한 말과 같이 "조선시대까지 상하 수천년 동안 한 도(道 경상도) 안에서 많은 문무고관·학자·문장가·덕행의 인사와 충절의 선비·선석(仙釋)·도류(道流)를 낳아 '인재의 부고(府庫)'라 불려졌고, 이러한 옛 선비들의 유풍이 지금도 잠들지 않아 예양과 문물을 숭상하는 지역"이라고 찬탄케 한 문화력이 바로 그것이다.

· 조선시대의 문맥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경상도 인재부고(人材府庫)로서 이 지역출신들이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여 왔다. 성종대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한 영남사림파는 성장을 거듭하여, 선조 이후 정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학문에 있어서도 또한 영남학파가 크게 발전하여 경상도는 성리학의 연수(淵藪)가 되었던 것이다. 경북만 보아도 여말과 조선초의 길재에서 비롯된 영남학파는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을 거쳐 이언적(李彦迪)으로 계승되었고, 드디어 이황(李滉)은 주리파(主理派)로 불리는 성리학의 커다란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이황이 배출한 수 많은 문인들은 정계와 학계를 이끌어 나갔으며, 계속된 영남학파의 발전에 따라 경상도는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칭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점필재 김종직(畢齋 金宗直), 한훤당 김굉필(寒喧堂 金宏弼),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서애 류성룡(西崖 柳成龍),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 한강 정구(寒岡 鄭述),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등 많은 인재가 영남문화 속에서 배출된 것이다.

경상우도의 학맥의 머리에는 좌도의 퇴계 李滉선생과 같은 해에 출생한 남명 조식(南冥 趙植)선생이 있다. 경상우도의 학맥은 비록 남명 몰후, 근 100동안 거의 은재(隱在)한 듯 하더라도, 근자에 남명의 재조명 기운이 드높으니, 남명학의 가치체계의 정립은 장래 크게 기대되는 터이다.

동학의 창도자 최재우도 경주에서 나서 대구에서 타계(他界)하였다. 현존하는 상주의 동학관련 문물 또한 낙동강 유역문화의 살아있는 증거라 하겠다. 동학은 우리 민족고유의 사상을 주체로 한 종교사상이며, 이 사상은 농민운동으로 전개된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고, 3·1운동의 추진력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정치·경제·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영남은 한 말에서 일제에 걸쳐서 일어난 항일의병이나 독립운동의 거대한 흐름도 간직하고 있다.

이무튼 이 학맥들이 거의 모두 낙동강 유역의 문화 거점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맥 즉, 학맥·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5. 영호정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낙동강 유역의 유래와 전설, 역사적 흐름, 유역의 발원과 생태, 유역의 분지문화 및 낙동강유역의 문맥에서 한문화(韓文化) 지역성(地域性)은 산맥(山脈)과 강하(江河)들의 양태(樣態)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강하들은 문화를 옮겨서 쌓이게 하고, 산맥들은 문화를 막아서 모아, 그 영역을 경계지워 왔다. 즉, 산은 문화를 갈라서 막고, 물은 문화를 옮겨서 퍼지게 한다. 강하(江河)는 산맥처럼 지역을 격리시키는 작용보다는 유역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등을 교류 화합시키는 문화적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5대강 즉,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은 모두가 선사시대부터 한문화(韓文化)권을 형성하여, 한국사와 한문화 전체에 크나큰 역할을 해왔으나, 그 유역사를 거시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삼한시대에는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이 낙동강을 중간에 두고 형성되면서 여러 성읍국가(城

邑國家)의 소국들이 이 강의 유역에 분포하였으며, 다시 진한지역에서 신라가, 변한지역에서 가야가 각기 흥기하여 찬란한 고대문화를 발전시켰다. 당초 낙동강 동쪽을 차지했던 신라가 강의 양안에 분포해 있던 가야를 병합한 여세를 몰아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통일신라 이래 낙동강 유역은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로서 존재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의 한국사는 신라의 본고장인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낙동강(洛東江)은 영남문화(嶺南文化)의 젖줄인 동시에 한국기층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생태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기술(historiography)에 있어서나 문화기술(ethnography)에 있어서나 행정단위를 넘어서 총체적 시각에서 낙동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사회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金宅圭, 洛東江流域史 研究, 韓國郷土史研究 全國協議會, 修書院, 1995. 12
 李樹健, 南冥 曹植과 南冥學脈, 民族文化論叢, 嶺南大學校, 1982. 12
 李樹健, 朝鮮期 嶺南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의 哲學, 1993. 2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12

洛東江洪水統制所, <http://www.nakdongriver.go.kr/>
 洛東江保存會, <http://www.nakdong-r.or.kr/>
 釜山環境運動聯合, <http://pusan.kfem.or.kr>
 洛東江研究員, <http://lotus.pwu.ac.kr/~nakdong/>
 慶尙道地理地, <http://kkpost.go.kr/>